

지스트, 2022 창의융합경진대회 개최

- 탁구 로봇 및 알고리즘 개발 등 방학 반납한 대학생들 두 달 간 열띤 경쟁 벌여
- 인공지능·차세대에너지 기반 기술 등 융합기술 분야 인재 육성 위해 매년 개최



▲ 제6회 지스트 창의융합경진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시상식 개최 후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 융합기술원(원장 류제하 교수)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가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제6회 창의융합경진대회**」가 8월 23일(화) 시상식을 개최하고 약 2개월 간의 대회 일정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지난 2017년 첫 회를 시작으로 올해 6회째를 맞은 「창의융합경진대회」는 인공지능, 지능로봇, 가상환경, 헬스케어, 차세대 에너지 기반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상응하는 **융합기술 분야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으며**, 참가 대학생 3~4명이 하나의 팀을 이뤄 공동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협동심과 집단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스트 융합기술원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이 각 팀의 멘토를 맡아 현장 지도와 조언 등 실질적인 도움을 지원하며 참가 학생들의 무한한 창의성 발현과 혁신적인 아이디어 구현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6월 말부터 약 두 달 동안 국내 대학 학부생 24명이 총 7개 팀을 이뤄 진행된 올해 대회는 '탁구 로봇 콘테스트'와 '캠퍼스 에너지 관리 시스템(EMS)* 개발 콘테스트'의 2개 트랙으로 나뉘어 개최됐으며, 참가 학생들은 여름방학을 반납한 채 두 달간 혁신적인 탁구로봇 개발과 알고리즘 개발에 몰두하며 대회를 치렀다.

* **EMS**: Energy Management System

'탁구 로봇 콘테스트'는 도전 문제를 수행하여 순위를 경쟁하는 방식으로, 탁구 머신에서 나오는 탁구공을 탁구 로봇이 맞히는 것과 탁구 로봇과 참가 학생 간 탁구 경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제6회 지스트 창의융합경진대회 '탁구 로봇 콘테스트' 부문에 도전한 참가팀 학생이 탁구 로봇과 경기를 펼치고 있다.

'캠퍼스 EMS 개발 콘테스트'는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하 예측 알고리즘, 태양광 발전량 예측 알고리즘, 전기요금 최소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콘테스트로, 부하 예측 오차율, 태양광 발전량 오차율, 사용 전기요금을 계산해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올해 대회 우승은 '탁구 로봇 콘테스트' 부문에서 <컴퓨터 비전과 로봇 강화학습을 이용한 탁구 로봇 개발>을 진행한 **지스트 학사과정 기계공학 전공 학생(이정우·신현범·한정석)**들로 구성된 '**지핑이**'팀이 차지하며 상장과 25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에는 '탁구 로봇 콘테스트' 부문 '**고양이가 정해줌**' 팀과 '캠퍼스 EMS 개발 콘테스트' 부문의 '**오늘의 날씨**'팀이 선정됐으며, 우수상은 '탁구 로봇 콘테스트' 부문 '**Zaqqum**'팀, 장려상은 '탁구 로봇 콘테스트' 부문의 '**CP**'팀과 '캠퍼스 EMS 개발 콘테스트' 부문의 '**MySolar**'팀이 수상했다.

※ [참고] 제6회 지스트 창의융합경진대회 수상팀

상명	참가트랙	수상팀명	아이디어명
대상	탁구로봇	지핑이(GIST대학) 이정우 , 신현범, 한정석	컴퓨터 비전과 로봇 강화학습을 이용한 탁구 로봇 개발
최우수상	탁구로봇	고양이가 정해줌(GIST대학) 김승은 , 김규민, 현승혁	지도학습과 강화학습을 활용한 4 자유도 탁구로봇
	캠퍼스 EMS 개발	오늘의 날씨(GIST대학) 고준희 , 장원식, 유동근, 안유진	지스트 캠퍼스 EMS 개발
우수상	탁구로봇	Zaqqum 장연성(GIST대학) 강현욱(안양대) 권예준(인하대) 이정현(한양대)	3축 베벨기어를 활용한 다관절 탁구 로봇 제작
장려상	탁구로봇	CP(GIST대학) 이은결 , 성정훈, 이유승, 지유나	3관절 로봇팔
	캠퍼스 EMS 개발	MySolar(GIST대학) 김민서 , 김이름	Energy Management System with Solar Power

이번 경진대회 책임교수를 맡은 융합기술학제학부 윤정원 교수는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과 하드웨어(로봇)가 결합된 융합연구 주제를 이용한 경진대회 방식으로 진행돼 학생들의 참여 열의와 흥미가 매우 높았다"며 "창의융합경진대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도전정신을 지닌 융합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